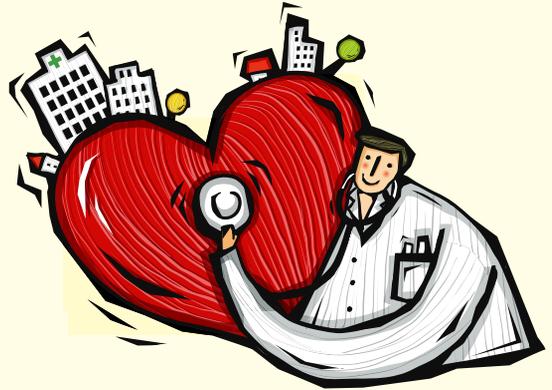


결핵상담실

Q 신생아기에 BCG 접종을 놓치면 이후에 접종을 해도 되나요? BCG 접종 효과는 영구적이지만 없다고들 하던데, 지속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다시 백신을 맞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A 접종 시기를 놓쳤더라도 가급적 빨리 접종하는 것이 좋은데, 접종 시기가 많이 지났거나 결핵 환자와 접촉이 있었던 아이는 먼저 결핵 피부반응 검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본 후 접종 여부를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시지의 결핵 예방 효과는 10년 정도 지속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후로 다시 접종하지는 않으며, 적절한 건강관리를 통해 결핵 발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Q 일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가래에서 피가 나와 검사를 받고 채혈한 것에 대한 유전자 검사에서 결핵 면역이 있는 것으로 판정 받고, 폐결핵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래 및 위액에 대한 현미경 검사에서는 결핵균이 음성으로 판정되어, 감염성 자체는 낮아 강제 입원은 면했으나 약 복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달 중순인 14일부터 7월



말까지 약 3개월 가까이 한국으로 파견업무를 나갈 예정인데요, 한국과 일본의 결핵 처방 약제가 같다고 들어서, 가능하다면 파견 업무를 차질없이 진행하면서 한국에서 이어서 통원치료를 받고 싶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한국 보건 당국에서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셔서 파견 자체가 어려워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항공사에서도 탑승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구요. 관련 사례가 있는지, 혹은 치료를 시작한지 2주, 길면 한 달 정도면 감염성이 사라진다고 하던데, 그 후로는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A 일반적으로 폐결핵 초기치료의 경우 2~3주간 치료를 하면 대부분 전염성은 소실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핵약을 복용해도 계속 균이 배출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직장의 한국지사를 통해 좀 더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국 입국과 비행기 탑승 등은 전염성 결핵환자이면 제한받을 수도 있습니다.

Q 작년 4월경 당사 직원 중 한 분이 활동성 폐결핵 판정을 받고 항결핵제 처방을 받은 처음 2주

간만 쉬고 이후 약을 복용하면서 계속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5월에 정기건강검진에서 찍은 폐 사진으로는 다른 직원들의 감염은 없었습니다. 해당 직원은 꾸준히 치료하여 11월경 치료경과가 양호하여 치료를 종료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 중순 경 다른 직원이 복수가 차서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았는데 결핵성 복막염으로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이 두 분이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결핵성 복막염도 전염되는 건지, 만약 그렇다면 다른 직원들은 다른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A 상기 두 사람의 결핵 발병 상관 여부는 가능성은 있지만 확실한지 여부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폐결핵 없이 결핵성 복막염만 발병했다면 폐외 결핵이므로 전염성은 없을 것이며, 치료는 폐결핵처럼 약물치료를 하면서 경과관찰을 하면 될 것입니다. 다른 직원들은 일단 흉부 X-선 검사를 하시고,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결핵 피부반응 검사 및 인터페론 검사(혈액검사) 등을 해 볼 수 있습니다.

Q 어머니(74세)께서 작년 가을에 서울삼성병원에서 결핵 판정 후 2주 전까지 6개월간 약을 복용 후 최종적으로 X선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없던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 CT검사를 추가로 받으셨고 18mm 혹이 있음을 확인하고 입원 후 조직검사를 하기로 해 현재 입원 대기 중입니다. 2~3개월 만에 18mm 크기의 혹이 발생할 수 있는지요? 치료 중 2~3개월 단위로 계속 X선 검사를 받았는데, 이번에 갑자기 발견되어 당황스럽습니다. 결핵환자의 치료흔일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요? 만약, 양성 결핵증이

라면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인지, 또 결핵환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치료비 지원 프로그램을 받았는데 입원 후 조직검사 부분에도 가능한가요?

A 폐결핵을 앓고 난 후 반흔(흔적 조직)에서 간혹 종양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전체 결핵 환자에서 어느 정도의 빈도로 발생하는지 또는 악성/양성 종양 발생 여부 등에 관한 자료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결핵을 앓은 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다가 종양으로 의심되는 음영이 발견되면 조직검사를 해야 합니다. 양성 종양이라면 일반적으로 경과 관찰을 하면 되지만 때로는 종양의 종류나 크기, 위치에 따라 수술 등을 요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조직검사 시에는 결핵진료 지원비는 해당되지 않고 일단 결핵으로 진단을 받은 후 결핵진료를 할 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조직검사 시 기흉의 발생 빈도는 환자의 상태, 병의 위치나 크기, 검사방법 등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

Q 작년에 결핵 진단받은 후 6개월째 약 복용 중인데요, 얼마 전에 병원에서 엑스레이 사진만 찍고, 약 한 달만 더 먹고 7월 즈음에 다시 검사하자고 하시네요. 결핵은 완치 여부를 엑스레이 사진으로만 확인 가능한가요? 혹시 재발일까 걱정이 됩니다.

A 폐결핵의 치료경과 확인이나 완치판정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흉부 X-선 검사 뿐만 아니라, 객담 결핵균 검사도 정기적으로 시행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료 종결 시점이 되었다면 객담 검사를 2~3회 정도 해볼 것을 권합니다. †